

한국 최초 글로벌 기준에 따른 기업 지속가능경영 순위 발표된다.

- 포춘 100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인 Accountability Rating 적용
- 12월 초 발표 목표로 국내 30대 대표 기업 대상으로 평가 시행

Sd3사(대표 제이슨 펅스)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인 'Accountability Rating'을 국내에 도입,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국내 대표 3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그 순위를 2008년 12월초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Accountability Rating은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 표준인 AA1000AS를 개발한 영국 'AccountAbility'사와 영국 기업사회책임 컨설팅사인 'CSR Network'가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으로, 포춘 글로벌 100대 기업(G100)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순위를 포춘지에 매년 말 발표한다. 순위가 부여된 기업은 HP, BP와 같이 자사 평가 결과를 타사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석 보고서를 요청, 활용할 수 있으며, Vodafone처럼 자사 지속가능성보고서에 평가 순위를 밝혀 브랜드 제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Accountability Rating은 전세계 10개 국가 파트너십을 통해 해당 국가별 대표 기업의 순위도 평가, 발표하며 국가별 평가 결과는 G100 최종 순위 결정에도 반영된다.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금번 한국 기업에 대한 Accountability Rating 평가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우수 실천사례를 보급, 국내 지속가능경영에 방향성을 제공하고 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으며, 평가의 공동 주관사인 Sd3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수행되는 국제적 동일 기준의 평가이기에 한국 기업에게도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비교 평가 잣대가 주어졌다. 본 제도에서 제공되는 경쟁사와 산업별 벤치마킹 분석 보고서 및 교육 활용을 통해 실질적 지속가능성 성과 혁신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위	기업명
1	BP
2	Barclays
3	ENI
4	HSBC
5	Vodafone
6	Royal Dutch/Shell Group
7	Peugeot
8	HBOS
9	Chevron
10	DaimlerChrysler

순위	기업명 (한국 기업)
44	SK Energy (SK Holdings)
56	Hyundai Motor
58	LG
63	Samsung Electronics



<표> 2007 G1000 기업 Accountability Rating 순위